

2002년도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결과발표회



일시 : 2003년 9월 18일(목) 14:00 - 16:30

장소 : 교보생명빌딩 10층 소강당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110-7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Tel: (02)736-8925~6/721-3288~9 Fax: (02)736-8927
www.kbedu.or.kr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大山 慎鏞虎 창립자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창립되었습니다.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장학사업, 사회교육사업, 교육복지사업, 환경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통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배움의 기회가 공평하게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삶의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I. 2002년도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사업개요.....	5
II. 좀더 효과적인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제언/ 연태영-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7
III. 2002년도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례	
□ 차세대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17
□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27
□ 들꽃 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숍/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들꽃사랑 꽃다지.....	39
□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 습지와 새들의 친구.....	47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환경 지도자 양성교육/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55
□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65
□ 숲 생태 지도자 양성과정/ 숲 연구소.....	71
□ 만관기업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푸른약속전북21 추진협의회.....	77
□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여성환경연대.....	83

I. 2002년도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사업개요

최근 들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교육을 진행해야 할 교육자 즉 환경지도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올바른 환경관을 가진 환경지도자의 부족은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적 감수성'을 중요시해야 할 환경교육을 자칫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할 지도자의 양성과 함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및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 2002년도 지원 단체 선정

작년 사업에 응모한 총 34건의 프로그램 중에서 시의성, 사업의 참신성,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 심사위원

- 염태영(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 이기명(KSDN/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사무처장)
- 조홍범(서경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중간심사 및 결과보고서 심사

- 중간심사는 재단 사무국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진행의 충실성, 예산사용의 적절성 및 향후사업진행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 결과보고서 심사는 사업의 완성도, 사업결과의 기여도,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다.

○ 2002년 지원단체

번호	선정단체	대표자	선정 프로그램	비고
1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들꽃사랑 꽃다지)	김윤덕	들꽃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샵	
2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	
3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조 형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환경 지도자 양성교육	
4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차세대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5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원경선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	
6	숲 연구소	남효창	숲 생태 지도자 양성과정	
7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유정철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 (전라북도 지방의제)	신균정	민·관기업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9	여성환경연대	박영숙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	

II. 좀 더 효과적인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제언

염태영(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환경교육의 목적은 교육생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1. 글을 열며

기업의 대 사회적 공익활동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나 복지시설에 수익의 일부를 희사하여 돕는 경우도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한 부문에 지속적인 공익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환원운동이 그렇게 익숙한 관행이 아닌 터에, 기업의 이러한 공익활동은 적극 격려되어야 하며,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보생명의 '교육문화재단'과, 이 재단의 '환경교육사업'은 우리 같은 환경운동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보전과 생명존중의 성과를 같이 나누게 될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환경문화상'으로 자리를 잡은 '교보생명환경문화상'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교육 지원사업은 많은 환경운동가나 환경단체에 큰 영예이자, 매우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다.

기업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오너나 CEO의 개인적 관심 영역에 따른 단편적 지원이나, 세비절감을 위한 미술재단 설립·운영 등과 같은 기업의 또 다른 잇속 챙기기 공익사업이 아닌, 보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환경부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교보의 생명문화운동을 우리는 매우 소중히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보의 이러한 활동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교육사업 및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2.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특징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약칭)은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교육'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화두가 재단의 설립 이념이자, 운영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지원사업은 재단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재단의 「환경교육사업」은 ‘환경지도자양성프로그램지원’, ‘환경활동가교육지원’, ‘환경현장교육’, ‘환경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해외연수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재단은 「환경문화사업」으로 ‘교보생명환경문화상’과, 「장학사업」으로 ‘대학생환경논문공모’, 그리고 「기획사업」으로 ‘대안학교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과 발표회를 갖는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여러 환경교육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사업이자, ‘환경운동가 리더십 양성 교육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목적인 바를 제대로 이루려면, 그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중심에 놓고 추진해야만하며, 그래야만 여타의 다른 환경교육사업 또한 제각기 특성 있는 발전과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본 사업은 ‘환경부문’ 사업이라는 점이다. 목적인 바의 지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상이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현재 시점 우리의 환경부문 활동은 ‘지속가능성’과 ‘녹색 감수성’을 그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사회·환경부문의 환경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고루 중시하는데서 비롯하고, 녹색 감수성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정작 자연을 잃어버린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조화로운 삶의 기본조건이다.

둘째, ‘지도자교육’ 사업이라는 점이다. 환경교육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사회교육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환경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또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환경활동가 교육지원’사업과는 그 대상과 수준에 있어 구분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그 과제의 전문 활동가나 실제 현장강사가 되기에 충분하도록 심도 깊은 교육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기본원리가 이론뿐이 아닌, 실천과 현장검증을 통한 프랙티스(Practice) 임을 환기할 때, 본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은 과정 수료 후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내용을 시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나아가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예측’이 중요한 덕목이다. 향후 환경운동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산림훼손, 그리고 심각한 물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구의 수용 능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계획적인 환경관리, 그리고 물질문명 가치의 왜곡

을 가늠하는 건강한 환경윤리의 확립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전 인류의 힘겨운 노력은
바야흐로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 일컫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미래의 환경관련 수요 예
측은 지도자 양성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21세기에 보다 존중될 가치로서 문화와 여성주의, 그리고 생태주의 등을 꼽았
다. 이런 항목 외에도 영적 건강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동양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며, 관용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와 자치 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리성
이 또한 미래의 대안 만들기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3. 환경지도자의 이해와 과제

보통 지도자라 하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여
기서 우리가 말하는 환경지도자란 ‘건강한 환경윤리에 입각한 현장 가이드가 가능한 사
람’을 일컫는 것 아닌가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전문가나 운동가 등으로 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환경위기가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
고 이를 각 부문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대안운동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지
도자는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지나 녹색 감수성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고
미래세대에의 책임성과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장 실천성이 더욱
소중한 덕목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 환경지도자가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윤리와 인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진보’와 ‘발전’이 가져다주리라는 ‘양적개발’과 ‘생산력’주의에 대한 환상의 인식
전환

둘째, 민주주의와 평등이 안고 있는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의 합의의 함정과 정
당성 재고찰.

셋째, 인간중심주의와 과학기술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와 같은 반성과 문제의식을 기초로 환경지도자는 환경정의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라 함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형평성을 의미하지만, 환경정의는 인간과
인간간, 인간과 자연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또한 환경정의는 자연
개발과 이익이 주로 편중되는 선진국과 지배계급, 부유층, 남성, 성인, 현세대 인간, 그리
고 인간중으로부터, 이에 반하여 그 피해와 불이익이 주로 미치는 후진국과 유색인종,

피지배계급, 빈곤층, 여성, 아동, 미래세대 인간, 그리고 인간이외의 자연 생태계 종에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함을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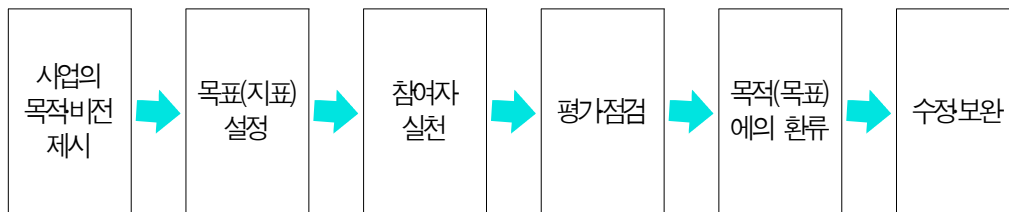
자연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환경지도자는 ‘생태학적 상상력과 녹색 감수성’을 기본자산으로 미래세대의 환경권 수호와, 자연과의 화해와 조화로운 삶을 위한 생명윤리의 실천에도 앞장서야 한다.

최근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단순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혁명을 이끌고 있다. 21세기 생태사회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귀농운동, 대안학교운동, 생태공동체운동 등 주류사회의 생활양식과는 차별화된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도사회,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반대하여 ‘느림의 미학’, ‘게으름의 미덕’, ‘마음의 평정’을 선택하는 개인과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도 환경지도자는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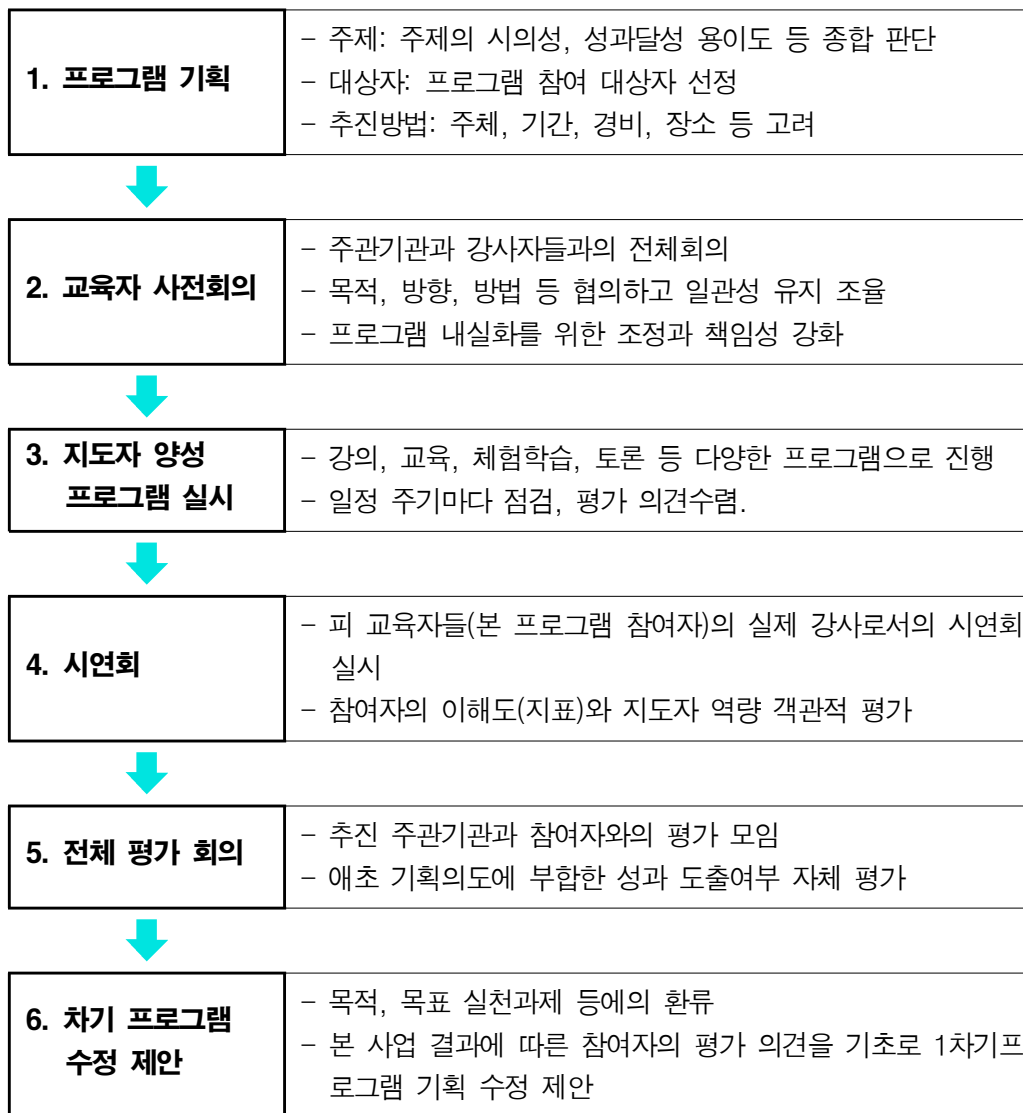
4. 본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 방안

환경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학습과제의 결과적인 이해와 전달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과정을 익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본 지원사업의 보다 합리적인 기획과 내실 있는 추진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성과 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보통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방식은 ‘의제21’이 강조하고 있는 ‘참여 파트너십’과 ‘실천’,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데서 응용한 것으로서 다음은 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식 제안 모식도이다.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추진과정 모식도 중 일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1. 3. 5. 과정외에 2. 4. 과정을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본 지원 사업만 이라도 단위 사업 당 지원비가 최소 1천만원 정도는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지원사업의 1회 이상 현장 중간평가와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교류회 등을 정례화 해야 한다.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차년도 지속 사업의 우선권을 주고, 해외 환경지도자 양성 연수 등의 별도 특전으로 격려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평가 시에는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과 그 대상자들의 참여의 일관성도 중시함으로써, 처음 참가자가 마지막까지 충실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5. 달으며

환경지도자들은 피곤하다. 아니 환경활동가 모두가 고단하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결국 우리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이 모든 이슈에 대응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렇더라도 효율적 운동 수행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안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제의 선택과 집중은 단체의 성격과 역량,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유능한 환경지도자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남다른 감각과 안목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공익사업 지원재단은 이러한 환경지도자들을 계발하여 인적 pool로 link하고 network화하는데 있어 장시간 지속적으로 남다른 애정과 투자를 기울여야 비로소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재단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활동가들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신부님들의 '피정의 집'과 같은 쉼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곳에서 게으름도 배우고,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깨달으며, 생명현상의 위대함도 조용히 관찰하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본다. 솔직히 환경지도자는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환경관련 포털사이트를 재단이 만들고 서버를 무상 제공했으면 한다. 이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국내외 환경관련 민·관기업, 그리고 관련기구들이 모두 접속되어 있어 정보의 검색은 물론, 모든 환경관련 홈페이지가 주제별로 분류되어 환경정보의 '종합 관제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생각한다. 또한 이 사이트 한편에는 환경지도자들이 맡는 환경 cyber 강좌 등을 개설하고, 필요시 on-off line을 넘나드는 강의가 자발적 참여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상당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1세기 지식정보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환경교육과 정보의 쌍방향 유통은 아직 초보수준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 본다. 환경지도자는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다듬어 지는 것이리라.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시간에 아이들은 당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것과 당신은 그저 자연을 조용히 산보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라.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 때 새의 지저귀거나 나뭇잎 위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페스탈로치-

2002년도 환경지도자 양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례

- 차세대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들꽃 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숍/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들꽃사랑 꽃다지
- 습지와 철새 생태여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 습지와 새들의 친구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환경 지도자 양성교육/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 숲 생태 지도자 양성과정/ 숲 연구소
- 만관기업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푸른약속전북21 추진협의회
-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여성환경연대



차세대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단체명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업기간	2002. 6. ~ 2002. 11.		
담당자	박양규	E-mail	ecoer@greenkorea.org
전화	02-747-3753	팩스	02-766-4180

차세대 환경지도자양성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1. 사업배경

-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급격하게 환경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간, 계층간, 지역간의 사회적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환경 분쟁은 분쟁지역 주민의 환경관련지식과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소모적 분쟁의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분쟁지역주민의 운동을 지원하는 환경운동가의 경우에도 환경관련 법률지식의 부재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지원역량과 현장대응능력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 환경 분쟁의 증가에 따른 환경관련 법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증대에 불구하고 현재 국내 환경법 전문 강좌의 개설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관련 전문가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사회기여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2. 사업목표

- 지역주민 및 환경운동가에 대한 환경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환경 분쟁과 환경운동을 지양하고,
 - 주민권리의식의 고취를 통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증대하고,
 - 환경운동가의 법률적 지식을 확대하여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을 추구하고,
 - 환경법전문가들의 사회참여비율을 높여 지식의 사회공헌과 공유를 유도하고,
- 교육 자료집의 제작을 통하여
 - 국내 환경법 전문 강좌의 교육데이터 구축과,
 - 자료집 배포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전달의 효과를 증대한다.

3. 사업범위

○ 교육대상자

- 환경활동가 - 환경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활동가
- 일반시민 - 분쟁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및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 교육내용

- ※ 원칙 - 딱딱하기 쉬운 법학교육을 피하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례위주로 나누어 교육한다.
- 환경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개별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 환경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개별환경 사건을 설명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높임
- 환경관련 행정절차의 이해를 높임으로서 환경 분쟁의 사전예방을 도모함

○ 교육기간

- 2002년 10월 21일 ~ 2002년 10월 30일
- 1일 2개 강좌

4. 사업내용

○ 환경법률학교 추진위원회 구성

- 인적구성 - 변호사, 법대교수, 중견 시민활동가로 한 5인으로 구성
- 역할 - 교육 커리큘럼 검토 및 선정
 - 강사진 선정
 - ⇒ 선정기준 : 전문성, 적극성, 시민사회(단체)참여율
 - 사업평가

○ 교육 커리큘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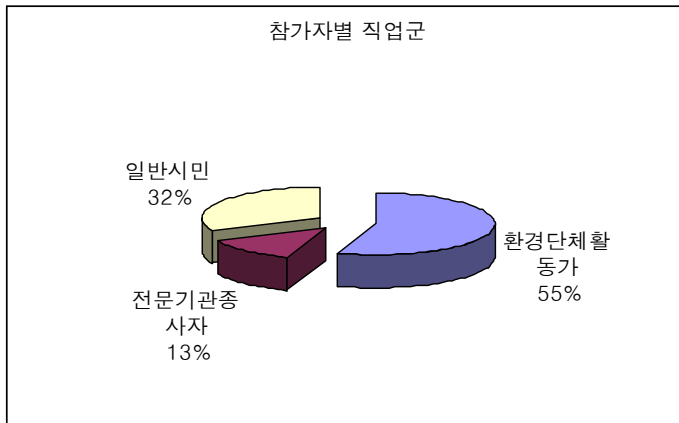
-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법률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제1회 환경법률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커리큘럼을 작성
 - ⇒ 선정기준 : 법이론 < 환경 분쟁 사례(판례, 케이스)

※참 고(제1회 환경법률학교 커리큘럼 -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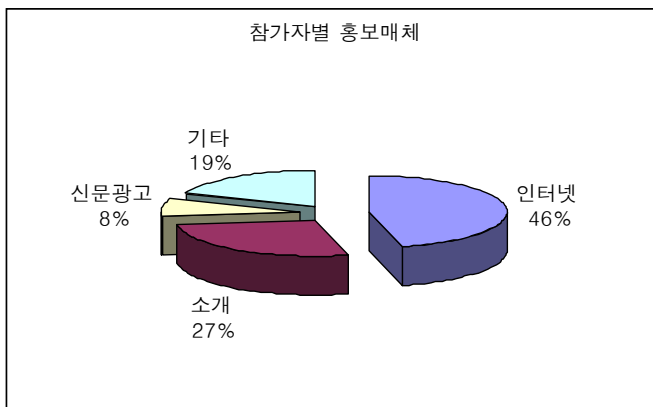
순서	강 의 제 목	순서	강 의 제 목
제1강	환경권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이해	제5강	환경법소고
제2강	환경형법	제6강	환경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용
제3강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해	제7강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활용
제4강	환경시법	제8강	국제환경법해설

○ 수강생 모집 - 일간지, 주간지, 홈페이지, 이메일(개별 환경단체 활동가)을 통하여 공개모집

- ▶ 총 참가자 : 36명
- 환경단체활동가 : 21명(58.3%)
 - 관련 전문기관종사자 : 5명(13.8%)
 - 기타일반 : 12명(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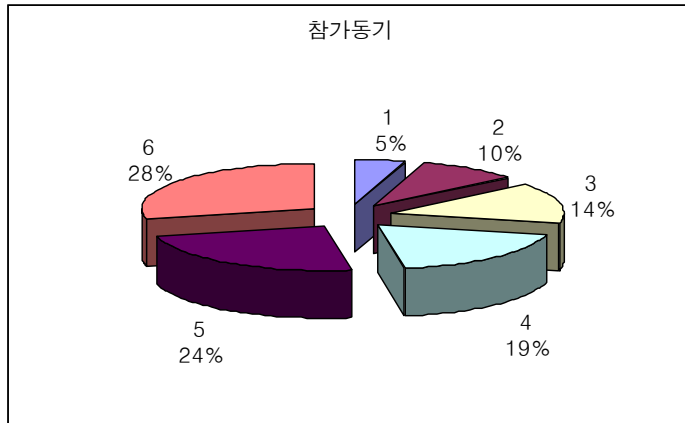


- ▶ 홍보방법별 참가분포 : 인터넷 홍보 12명(46%) / 주위사람들의 소개 7명(27%) / 신문광고 2명(8%) / 기타 5명(19%)



▶ 참가동기별 분포

- ① 본인/주위에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2명(8%)
- ②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12명(46%)
- ③ 환경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서 3명(12%)
- ④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8명(31%)
- ⑤ 주위의 권유로(0%)
- ⑥ 기타 1명(4%)



○ 학교운영 - 1일 2회 강좌 / 총 4일 8회 진행

제1강	2002년 10월 21일 (월)	18:30 ~ 19:50
제2강	2002년 10월 21일 (월)	20:00 ~ 21:20
제3강	2002년 10월 23일 (수)	18:30 ~ 19:50
제4강	2002년 10월 23일 (수)	20:00 ~ 21:20
제5강	2002년 10월 25일 (금)	18:30 ~ 19:50
제6강	2002년 10월 25일 (금)	20:00 ~ 21:20
제7강	2002년 10월 30일 (수)	18:30 ~ 19:50
제8강	2002년 10월 30일 (수)	20:00 ~ 21:20

○ 설문조사

-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의 이해정도를 판단하고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들어 종합평가에 반영
-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환경법률학교의 개선방향 모색
- 조사기간 : 2002년 10월 30일 ~ 2002년 11월 6일
- 조사내용 : 환경일반(수강생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내용 - 6개 항목
교육프로그램 내용 - 8개 항목

5. 커리큘럼

제1강	강의주제	환경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이해 - 환경관련법령체계
	강의내용	·국내 환경법의 역사와 체계에 대한 총론강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의미와 사법적 가치
	강 사	박수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제2강	강의주제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 - 새로운 국토계획법과 환경보호
	강의내용	·도시계획에 따른 환경파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 ·도시계획 수립시기의 주민참여의 중요성 및 참여절차
	강 사	김현준 교수(협성대학교 법학과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제3강	강의주제	환경피해의 분쟁과 구제방안 -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강의내용	·환경피해의 사법적 대응을 위한 법적(민사, 행정 등)절차 ·환경피해의 준사법적 대응방법(환경분쟁조정) ·관련 판례 소개
	강 사	우경선 변호사(환경소송센터 부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위원)
제4강	강의주제	건축관련 분쟁과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주민구제 -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와 권리구제에 관하여
	강의내용	·건축 관련 분쟁의 특징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관련 판례 소개
	강 사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5강	강의주제	개별 환경피해(대기·수질·토양오염)의 사례와 구제
	강의내용	·각 개별 환경피해(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 관련 판례 소개
	강 사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위원)
제6강	강의주제	폐기물관련 분쟁과 피해구제
	강의내용	·폐기물관련시설(소각장, 매립장 등)의 설치와 분쟁의 해결방법 ·관련 판례의 소개
	강 사	박오순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소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7강	강의주제	환경분쟁사례 VTR상영과 해설
	강의내용	·개별환경분쟁(정보공개청구, 난개발, 소음 등)의 분쟁사례를 다룬 VTR 상영 ·각 분쟁당사자들의 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룬 내용 ·법률적 해결과정 설명
	강 사	박수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제8강	강의주제	시민사회(환경운동)운동과 법률대응운동
	강의내용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운동에서의 법률적 한계 ·최근 환경운동의 성향과 법률적 접근
	강 사	박오순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소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강의 내용 선정은

환경법체계의 기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절차와 실무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을 통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강사진 선정은

환경법 기본이론의 강의를 위한 법대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는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환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위주로 선정하여 사례위주의 강의를 통한 현장성을 살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6. 자료집 제작

- 자료집은 강의의 기본 교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법률의 교육자료 데이터로서의 가치와
-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대다수의 환경활동가와 일반시민에게 자료집 배포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추구하며,
- 주제 강의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자료를 함께 실어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시켰다.

자료집 목차

제1강 환경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이해

제2강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

제3강 환경피해의 분쟁과 구제방안

제4강 건축관련 분쟁에 대한 주민구제

제5강 개별환경피해의 사례와 구제

제6강 폐기물 관련 분쟁과 피해구제

부록 1 판례

부록 2 환경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계획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7. 향후계획

- 환경법률학교 수강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수강생간 - Net-Work 구성(연락처, 이메일 등 교환)
 - 정기모임 추진
 - 홈페이지(www.greenlaw.or.kr)상에 대화방운영을 운영하고,

- 향후 수강생의 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항시적인 환경법률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3년부터 추진 검토 중(분기별 추진 검토)
·분쟁지역 방문 프로그램 마련 - 상호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환경법 관련 자료(판례, 분쟁사례, 법률 등)의 홈페이지 게재한다.

- 향후 교육에 참가한 환경활동가와 분쟁지역주민을 강사로 선정하여 현장의 운동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가와 일반인이 본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로 활용

8. 자체 종합평가

이번 환경법률학교는 미래 환경지도자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의 환경법률학교로서 1회 때 보다 수강대상자를 환경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번 환경법률학교는 과반수이상인 환경활동가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환경분쟁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활동가 및 분쟁지역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이번 환경법률학교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의 의의에 공감을 많이 가졌으며, 또한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 실생활과 현장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강의의 내용을 어려운 법률이론의 강의보다 당초의 계획대로 사례위주 및 판례위주의 강좌를 통하여 보다 쉽게 환경법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강의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제1회 환경법률학교보다는 향상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계되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강의의 시간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된 점으로서 이로 인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점, 첫 강좌의 시작시간이 너무 일러 수강생이 체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점 등 강의의 진행에 있어 시간적 안배와 배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법률학교는 환경법이론에 대한 교육 강좌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환경법 교육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보다 실질적인 사례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보다 많은 환경활동가(지역의 풀뿌리 환경단체의 환경운동가 포함)와 분쟁지역주민들에게 환경관련 법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분쟁의 해결과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향후 환경법률학교를 진행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명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업기간	2002. 7. ~ 2002. 12.		
담당자	윤주옥	E-mail	np2001@chollian.net
전화	02-961-6547	팩스	02-961-6547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 기획배경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 지역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아름다운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영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국립공원의 이념에 따라 140여개 국가에서 국립공원체도를 채택하여 1,400여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을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의 국립공원 관리는 개발 중심적 정책과 43%에 달하는 사유지, 국민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 성수기 일부 국립공원으로 집중되는 탐방객으로 공원의 자연자원은 훼손되고, 동·식물의 자유로운 삶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생태적으로는 ‘고립된 섬’이지만, 도시지역에 대한 ‘녹색허파’임과 동시에 수도권 이천만 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와 거대한 배후도시로 연평균 탐방객이 550만에 이르고 있어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탐방객은 정상 지향 산행과 계곡 유희를 위하여 공원을 방문한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확대 도입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현장에서의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의 이념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이용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향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탐방안내소와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유희중심·정상등산형 이용행태를 자연체험형 이용행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와 현장 안내자 등의 부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조건이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자연해설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 및 심화교육,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운영, 자연해설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소양과 현장 능력을 갖춘 자연해설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국립공원에서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사업내용

본 사업은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와 심화교육,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운영, 자연해설 모니터링 진행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생태교육,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재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사업을 조율하였고 활동의 전망을 만들어갔다.

구 분	내 용
전체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1~ 5차 기획회의 ·사업(활동)일지 작성 ·보고서 작성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교육 참가자 사전 모임 ·강사회의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연수 평가회 ·심화교육(광릉, 양재천, 수락산, 여의도샛강)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준비팀 모임 ·1~ 8강 가을생태학교 ·‘아름다운 북한산’ 교재 제작 ·교육 평가회
자연해설 모니터링	·1~ 15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모니터링팀 평가회

가. 교육기획위원회 운영

본 사업의 중심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생태교육전문가·아동작가·자원활동 경험자·진행팀으로 구성된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기획회의를 진행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구성원들은 생태교육을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는 전문가들로, 활동분야는 자연해설프로그램기획, 체험교육, 생태동화, 생물모니터링, 관계형성프로그램, 작은 산 살리기, 자연놀이 등이다.

나.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본 사업의 교육 참가자들은 그간 여타의 자연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 교육의 방향도 입문 과정을 거친

자연해설가들에 대한 현장 능력 강화에 맞춰졌다.

연수 참가자 사전 모임을 갖고 연수(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이후 교육 일정을 결정하였다. 교육 참가자들이 주 1회 교육하는 안보다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안을 선호하였고, 참가자들이 개인 일정 조정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논의되어 7월 22~23일, 29~30일로 교육 일정을 잡았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에는 강의와 실습, 답사, 시연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수 장소는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에 위치한 탐방안내소와 그 주변, 그리고 정릉지역 자연관찰로에서 진행되었다.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7/22 오전 10시~	[강의]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황선미	정릉탐방안내소
2강	7/22 오전 11시 30분~	[실습]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황선미	정릉탐방안내소 주변
3강	7/23 오전 10시~	[강의 및 실습] 자연해설을 위한 장 만들기	윤주옥	정릉탐방안내소 및 탐방로
4강	7/29 오전 9시~	[강의] 국립공원 자연해설의 특징과 중요성	서운호	정릉탐방안내소
5강	7/29 오전 10시 30분~	[답사 및 시연] 현장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답사 및 시연	이봉현	정릉자연관찰로
6강	7/29 오후 1시~	[강의] 유형별 자연해설 프로그램	지성희	정릉탐방안내소
7강	7/29 오후 2시~	[강의]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	서운호	정릉탐방안내소
8강	7/29 오후 4시~	[강의 및 실습] 효과적인 자연해설을 위한 기법	이봉현	정릉탐방안내소
9강	7/30 오전 10시~	[실습]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및 시연	서운호	정릉자연관찰로

교육 신청자는 18명이었으나 평균 참여자는 15.5명이었다. 참가자들은 평균 86%의 강의 참여율을 기록하여 강의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구분	성별		연령				직업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60대	주부	학생	직장인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명	8	10	4	12	1	1	6	3	5	1	3	18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실내강의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현장강의



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시연



심화교육 중 광릉수목원에서

심화교육에서는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근교의 자연학습장을 찾아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학교 개강, 휴가의 어려움 등으로 연수 참가자 중 선생님, 학생, 직장인 등은 심화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구분	일시	장 소	강사	참가자 수
1강	9/6	광릉 국립수목원	이봉현	9
2강	9/10	양재천	지성희	9
3강	9/17	수락산	지성희	8
4강	9/24	여의도샛강	강말숙	9
계				35

다.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운영

최근 시민단체를 필두로 하여 정부, 학교,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등 많은 곳에서 생태교육·현장체험 등의 이름으로 자연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에서의 직접 체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자연에서의 활동은 특별한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더라도 느끼고 즐기는 것 그 자체로서도 교육 효과가 높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계곡·바위 등의 경관과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접할 수 있어 현장체험 공간으로 적당하다.

본 사업에서는 연수를 마친 자연해설가 중 여건이 가능한 자원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생태학교를 운영하였다. 생태학교 운영을 위해 생태교육전문가·자연해설 자원활동가진행팀으로 구성된 준비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는 ‘아름다운 북한산’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전제로 하여 매 회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 기조는 현장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2002년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북한산성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에는 총 12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북한산성 근처에 위치한 북한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	일시	주 제	진행자	장 소	참가자 수
1강	9/9	열매와 친구하기	이혜영	북한산성매표소 주변	10
2강	9/16	물 웅덩이를 찾아서	김숙경	북한산성 마을 초입	14
3강	9/27	가을별자리를 찾아서	윤주옥	대서문 근처 광장	45
4강	9/30	물 속 곤충 관찰하기	이혜영	북한산성 계곡	10
5강	10/14	가을꽃에 이름표를 달아주기	김숙경	북한산성 등산로 초입	12
6강	10/21	북한산성의 역사	윤주옥	북한산성 대서문	9
7강	10/28	거미를 찾아서	김석우	북한산초등학교 주변	11
8강	11/4	북한산국립공원 오르기	윤주옥	북한산국립공원 의상봉	9
계					120

가을생태학교는 그 기조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설정하고, 어린이들과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현장체험활동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다.

매회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8권의 교재를 만들었다. 교재는 교육 주제에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연결하기, 나는 누구일까요, 만들기 등)을 활

용하였으며, 공통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과 국립공원 이용 방법, 친구들과 활동나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재는 어린이들과 활동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구분	주 제	중심 내용
1강	열매와 친구하기	·열매는 어떻게 생길까 ·열매를 찾아봅시다 ·씨가 퍼지는 여러 방법 ·연결해 보세요
2강	물 응덩이를 찾아서	·물응덩이에는 어떤 풀들이 살고 있을까 ·물 응덩이를 찾아서 ·풀을 이용한 만들기
3강	가을별자리를 찾아서	·별 이야기 ·북극성 만나기 ·별자리는 ·가을별자리 찾아보기 ·내가 만드는 별자리와 별자리이야기
4강	물 속 곤충 관찰하기	·물 속 곤충이야기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을까 ·관찰해 봅시다. ·수서곤충의 호흡법 ·북한산성 계곡 물의 맑기 측정하기
5강	가을꽃에 이름표를 달아주기	·나무와 풀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을꽃의 왕 들국화 ·주변의 식물을 관찰합니다 ·재미있는 꽃이름 알아보기 ·꽃의 이름표를 만들자
6강	북한산성의 역사	·북한산국립공원의 역사 ·풍수지리로 본 북한산 ·북한산성 알아보기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우리나라 전통문양
7강	거미를 찾아서	·거미의 생김새 ·거미 ○, × 퀴즈 ·거미줄의 비밀 1, 2 ·거미가 그물 치는 순서

구분	주 제	중심 내용
8강	북한산국립공원 오르기	·북한산의 바위에 대하여 ·바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풍화작용이란 ·돌이 병을 치료할까요?
기타	1~8강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	·나는 누구일까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알송달송 퀴즈 ·북한산국립공원 이야기 ·친구들과 활동나누기 ·가을생태학교 안내



자연해설 모니터링 중 구기계곡에서



가을생태학교 교재 모음

라. 자연해설 모니터링

자연은 쉽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해석을 고정화되어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면 현장중심의 체험에 실패하게 된다. 자연해설을 하기 전 답사와 구체적 모니터링을 첫 번째 실행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현장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해설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상의 동식물상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당일 자연해설에 활용될 학습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활동을 통해서만 자연해설 기본 지침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해설은 사전 답사와 모니터링에서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해설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모니터링에 참가자들이 자연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적응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평가회와 기획회의에서 자연해설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니터링의 개괄적인 방법이 제안되었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식 및 현장 진행자 등은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대상지의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으뜸 진행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발견한 자연해설 요소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록장에 기록하였다. 거리 측정을 위해 카운터기를 활용하였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한 생태적 환경과 동·식물은 사진 촬영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2002년 8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5개 등산로에서 총 75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등산로가 자연해설 장소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연해설을 기획할 때 어떠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장 활동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회수	일시	모니터링 대상 지역	참가자 수	으뜸 진행자
1	8/28	삼거리쉼터~ 승가사	7	김석우
2	9/1	비봉매표소~ 승기봉	5	이봉현
3	9/4	소귀천계곡~ 대동문	7	김석우
4	9/11	백운매표소~ 하루재~ 백운대피소	5	김석우
5	9/18	도선사~ 용암문~ 백운대피소	4	김석우
6	9/25	정릉매표소~ 정릉계곡~ 보국문~ 칼바위능선	5	김숙경
7	10/2	형제봉매표소~형제봉능선~대성문 ~성능~청수천 밑	5	김석우
8	10/9	아카데미하우스매표소~구천계곡~넓적바위	5	김석우
9	10/16	냉골매표소~내원사~정릉매표소	5	김석우
10	10/23	화계사매표소~빨래골매표소	6	김석우
11	10/30	진관사매표소~진관사계곡~비봉능선~탕춘대능선~탕춘매표소	4	김석우
12	11/6	도봉매표소~보문능선~우이암~무수골매표소	3	김석우
13	11/10	원도봉매표소~원도봉계곡~포대능선 ~망월사매표소	6	이봉현
14	11/13	회룡사매표소~송추계곡~송추분호~오봉매표소입구	4	김석우
15	11/20	북한산성매표소~북한산성계곡~보국문 ~정릉계곡	4	김석우
계			75	

3.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가. 커리큘럼 구성방법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대부분의 교육 참가자들은 그간 여타의 자연 공간이나 단체에서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비활동가

들이었으므로 교육의 방향도 입문 과정을 거친 자연해설가들에 대한 현장 능력 강화에 맞춰졌다. 입문한 예비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기획을 위한 현장 답사, 프로그램 구성, 시연 등을 내용으로 전체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흐름 속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연수(안)을 중심으로 연수 참가자들과의 사전 논의하여 교육 일정을 결정하였다. 교육 참가자들이 주 1회 교육하는 안보다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안을 선호하였고, 참가자들이 개인 일정 조정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논의되어 7월 22~23일, 29~30일로 교육 일정을 잡았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는 강의와 실습, 답사, 시연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수 장소는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에 위치한 탐방안내소와 그 주변, 그리고 정릉지역 자연관찰로에서 진행되었다.

구 분	강의별
지도력 형성	[1강]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2강]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실습
프로그램 기획 능력	[3강] 자연해설을 위한 장 만들기 [4강] 국립공원 자연해설의 특징과 중요성 [5강] 현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답사 및 시연 [6강] 유형별 자연해설 프로그램 [7강]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
현장 적응력	[8강] 효과적인 자연해설을 위한 기법 [9강]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및 시연

강의 진행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은 분리 또는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주요하게는 현장 중심의 강의가 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는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다고 가정하여 현장 답사 기법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상황 설정, 현장에서의 자연해설 기술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도록 하였다.

나. 강사구성 및 선정방법

강의 내용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강사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하였고 강의 경력 및 현장 경험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길동자연생태공원’ 자연해설가, 난지도 하늘공원 교육안내자 등은 현장 활동가들을 강사로 활용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이름	약력
황 선 미	·1976년 생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사 및 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 소지 ·MBPI 중급 수료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소 근무 ·현.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연구원
윤 주 옥	·1966년 생 ·경희대학교 졸업 ·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자원활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책실장 ·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현. 성공회대 겸임교수(강의명: 내고장 환경대안 찾기)
서 윤 호	·1966년 생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녹색연합 교육부장 ·환경교육정보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현.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교육기획실장
이 봉 현	·1975년 생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관상원예과 졸업 ·생태보전시민모임 지역사업팀장 ·인천대공원 자연해설가 양성사업 기획 및 강의 ·현. 초안산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사업 교육기획실장
지 성 희	·1966년 생 ·경희대학교 졸업 ·길동자연생태공원 1기 자원활동가 대표 ·국립공원 자연해설 직원 연수 강의 ·초안산 자연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강의
강 말 속	·1966년 생 ·서울여전 졸업 ·길동자연생태공원 자원활동 ·현. 글짓기 강사 ·현. 난지도 하늘공원 자연해설프로그램 강사

4. 교육 이수 후 활동내용

교육 참가자 일부는 사업의 과정으로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가을생태학교에서는 교재 제작, 교육 진행, 교육 평가에 참여하면서 강의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습하였고, 자연해설 모니터링에서

는 현장 답사 기법과 생태계 및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물상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외부 강사와 함께 하기도 했지만 주요하게는 교육 참가자 간의 상호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재 각자가 속한 단체 또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자원활동가가 되어 북한산국립공원의 신비한 자연생태와 아름다움을 탐방객과 함께하고 있다.

구 분	명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자원활동가로의 활동	8
관련 단체에서 활동	3
자연해설 관련 해외 유학	2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4
취업	1
계	18

들꽃 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숍



단체명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들꽃사랑 꽃다지)		
사업기간	2002. 4. ~ 2003. 3.		
담당자	신진철	E-mail	todogs@hanmail.net
전화	063-284-6161	팩스	063-284-6166

들꽃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샵

1. 사업목적 및 의의

○ 생태교육 지도자의 발굴, 육성

최근 환경의식의 고취와 함께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교육을 담당할 지도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교육방식의 지도자 육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태교육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함.

○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 환경의식의 고취 ⇒ 생활속 환경실천 유도

생태교육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특히 일선 학교외에 일반 시민들과 가족단위가 참여하는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의 고취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속에서도 환경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역의 자연환경 자산의 발굴과 보존 ⇒ 향토의식의 고취

환경문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대담론적인 환경문제의 접근이 아닌 일상생활 주변의 자연환경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및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나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1세기 우리 사회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시민들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키워나가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부와 일선교사, 대학생 그리고 일선활동에서 정년퇴임을 했지만, 고급한 인적자원을 환경교육의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일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운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사업개요

○ 제 목 : 들꽃생태교육 지도자 워크샵

○ 일 시 : 2002년 5월 23일 ~ 2003년 5월 23일

○ 장 소 : 시민행동21 교육실 외 전주수목원, 모악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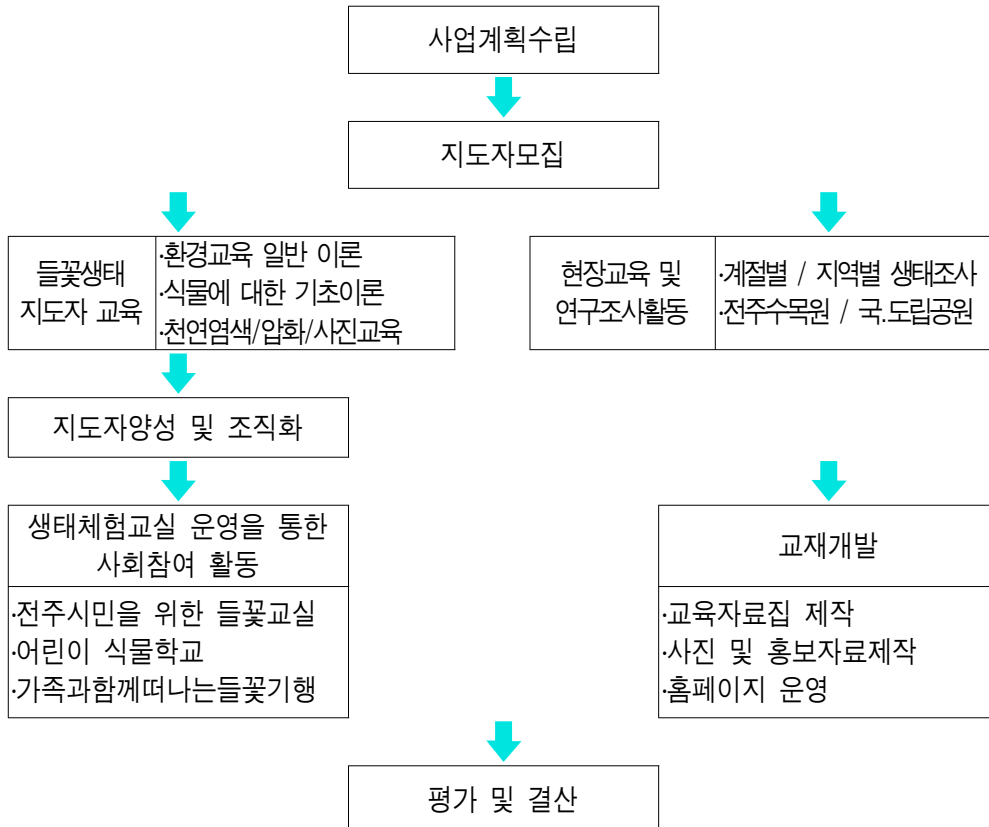
○ 대 상 : 교사, 주부, 대학생 등 40 여명

○ 사업추진기관 :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 사업내용

■ 이론교육 환경교육 일반 생태교육 지도자 개론 생태교육 진행요령 및 사례	■ 식물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 천연염색 배우기 1. 2 식물을 활용한 압화 제작 1. 2 들꽃사진 촬영 오령 1. 2. 3
■ 식물에 대한 기초이론 봄/여름/가을 들꽃들의 생태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식물에 대한 기초이해 1. 2	■ 현장교육 - 지역의 환경자산을 활용 모악산 들꽃생태조사 노고단(지리산), 적상산(덕유산) 들꽃생태조사 전주수목원 현장학습 (4~10월 매주 진행)

○ 추진절차 및 내용



○ 모집방법

·대상 : 일선교사, 주부, 대학생, 환경센터 회원 등 100여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환경센터 회원	손광진	시민행동21 환경센터	외 50인
대학생	이철호	전북대 새암누리, 푸른사람들	외 20인
교 사	박숙자	교대부속초등교사	외 30인
기 타	박현정	일반 주부 등	외 20인

○ 세부방법

- 자체 회원의 참가 조직화
- 지역 대학내 환경동아리 (환경캠프 및 연대활동) 회원 참가 조직화
- 전교조 및 환경관련 교사 모임과 연계
- 기타 들꽃기행 및 전주시민을 위한 들꽃교실 참가자 모집

○ 교육방법

- 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한 월별교육 - 환경일반 이론 및 식물기초이론
- 월 1회 현장교육 - 전주수목원 및 국/도립공원
- 계절별 테마교육 - 계절별 식물들의 특성과 생태
- 식물활용 테마교육 - 천연염색/압화/들꽃사진촬영
- 기타

○ 교육내용

일 시	교 육 내 용	인원	교육장소	비 고
3.30	생태교육진행요령, 사례소개	25명	전주수목원	이론학습
	들꽃생태교육에 앞서, 교육지도자로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 평가하는 요령 등을 정리. 생태체험교실 진행 경험사례 분석			
	교재 : 숲과 자연환경해설안내, 한국산림휴양학회 강사 : 김재병(전주시 지방의제21 사무처장)			

일시	교육내용	인원	교육장소	비고
3.30	봄에 피는 들꽃들의 생태	32명	전주수목원	야외학습
	이른 봄에 피는 들꽃들의 생태 (현장학습 진행) 복수초, 풍년화, 영춘화, 민들레 등 봄꽃들의 생태적 특징과 거울을 나는 방법 등 교육.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나무들. 2시 - 4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			
	별도 교재 없음.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4.13	모악산 들꽃조사 및 현장학습	15명	모악산	야외학습
	도립공원이자, 전주시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모악산에 서식하고 있는 들꽃들에 대한 조사와 현장학습을 통해 현장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우리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구이(상학마을)출발 - 대원사 - 수원사 - 정상 - 금산사 현호색, 피나무, 갯이눈 등 약 70종 정도 확인.			
	별도교재 없이, 도감, 필기도구 등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5.4	모악산의 들꽃생태	18명	시민행동21	기초학습
	지난 4월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봄꽃들의 특성과 식물습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학습 진행.			
	교재 : 슬라이드 사진 자료, 도감, 사진자료 강사 : 김병욱(신흥중학교 과학교사, 시민행동 환경센터 소장)			
5.16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23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의 종류와 특성 귀화식물들의 종류와 특성 귀화식물들의 생태를 통해 본 생태적 의미 환경지표종으로서의 귀화식물			
	교재 : 외래식물의 이해 강사 : 김병욱(신흥중학교 과학교사, 시민행동 환경센터 소장)			
5.30	천연염색 배우기 1	21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천연염색에 대한 기초이론. ·천연염색의 특성과 장점. ·염료식물들의 종류와 특성 ·천연염색의 과정과 주의사항 등			
	교재 : 천연염색 배우기 1 강사 : 고석렬(전 국립공업연구소 연구원)			
6.2	노고단 들꽃들의 생태	14명	지리산	야외학습
	함박꽃, 물참대, 고광나무, 애기나리, 금강애기나리, 노루오줌, 병꽃나무, 애기구슬봉이, 복주머니란, 족도리풀, 개회나무, 미나리아체비 등 노고단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의 특성에 대한 현장학습 진행.			
	별도 자료없이 도감, 사진기, 필기도구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일시	교육내용	인원	교육장소	비고
7.1	모악산 들꽃생태조사 및 학습	11명	모악산	야외학습
	구이(상학마을)-대원사-수왕사-정상-금산사 좁작살나무, 타래난초, 백선, 종덩굴, 나무딸기, 노루오줌 등 모악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조사 별도 교재 없이 도감, 사진기, 필기도구 등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7.4	식물에 대한 기초이해 1	21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식물용어 도해(꽃의 구조, 화서의 종류, 열매의 구조, 잎의구조 등) 교재 : 식물용어 도해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8.8	여름 들꽃들의 생태	18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점봉산 및 용늪 식물생태조사 결과보고 / 모데미풀, 숨다리꽃 등 고산지대 자생하는 식물들의 종류와 특성. 슬라이드 및 비디오 자료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 류달재			
7.23/ 8.15	식물을 활용한 압화제작,실습 (매주화목 오전10시-2시)	15명	시민행동21	이론및실습
	압화(꽃누름)의 기초 이해 / 압화 재료가 되는 꽃의 종류와 특성 꽃누름 과정 (꽃말리기) / 압화 실생활 활용품 제작(요지꽃이, 액자, 앨범, 열쇠고리, 폰출, 식물표본 등) 교재 : 압화 기초자료 강사 : 배선아(한국 프레스플라워 광주지부장)			
8.17	천연염색 배우기 2(실습)	34명	김제 죽산	실습
	황토염색, 소목, 오배자, 쪽(생쪽)을 이용한 염색, 매염제들의 종류와 특성, 천연염색 과정 실습, 황토, 생쪽, 오배자 등 염색재료와 매염제 그리고, 염색할 천과 셔츠 등 물들이기 교재 : 천연염색 배우기 2 강사 : 고석렬(전 국립공업연구소 연구원)			
9.5/ 9.12	식물을 활용한 압화제작,실습	24명	시민행동21	실습
	압화(꽃누름)의 기초 이해 / 압화 재료가 되는 꽃의 종류와 특성 꽃누름 과정 (꽃말리기) / 압화 실생활 활용품 제작 (요지꽃이, 액자, 앨범, 열쇠고리, 폰출, 식물표본 등) 별도 교재 없음 강사 : 왕행남, 박숙자, 이병욱			
9.26	가을들꽃들의 생태	21명	시민행동21	기초학습
	가을들꽃들의 생태 /적상산 식물생태의 특징, 역사문화등 기초자료학습 슬라이드 자료학습 슬라이드 사진자료, 적상산 기초자료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일 시	교육 내용	인원	교육장소	비 고
2003.1.16	들꽃사진 촬영요령	21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수동카메라의 원리와 작동요령 들꽃사진의 특성 이해하기 필립선택 및 빛을 이용한 효과내기 기본 구도 살리기			
	교재 : 들꽃사진 촬영요령 강사 : 소재현(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조경담당)			
2003.2.27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	35명	시민행동21	이론학습
	기본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 생물종 다양성이 가지는 생태적 의미와 중요성 들꽃사랑과 생태계 보전활동			
	별도 자체 자료 강사 : 김익수(한국 자연보호협회이사 및 전북지부장)			

3. 자체 사업평가

○ 사업결과 및 효과

- 생태교육지도자의 육성/지속관리 : 들꽃생태지도자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자들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꾀함.(꽃다지 회원 증가)
- 생태체험교육의 활성화 : 수목원 들꽃교실 외에 일선학교 체험교실 활성화 (올 상반기 50여차례 진행)
- 지역내 기관/자치단체의 지원확대 : 전주시/시교육청/전주환경청 지원확대 (온고를 체험교실, 청소년환경체험교실 등)
- 교육자료집 발간

○ 후속사업

- 전주시민을 위한 들꽃교실 / 전주천하천생태체험교실 / 어린이 환경교실
전주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들꽃교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선학교, 교사와의 연계활동
- 숲해설가 양성학교 등 프로그램 지속 추진
- 국립공원지킴이 활동 등으로 활동 확대 기대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



단체명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업기간	2002. 6. ~ 2003. 2.		
담당자	천성광	E-mail	chsg6445@dreamwiz.com
전화	051-644-0406	팩스	051-644-0407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

1. 사업 목적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을 위한 자연학교”는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을 위한 안내자를 양성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철새와 서식처로서의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생태기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는 동시에 국내의 자연 습지와 철새를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 의의

최근에 와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갯벌과 철새를 찾는 생태기행이 각급 학교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기행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의 부족과 생태기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기행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일반 관광과 같은 둘러보기식 기행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생태기행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이 파괴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많은 학교와 각종 단체들이 갯벌과 철새를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아이들과 나누고자 하여도 제대로 된 안내서 하나 없는 상태에서 혹은 교사들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생태기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연파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갯벌과 철새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춘 안내자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습지와 철새 생태기행 안내자 양성은 날로 증가하는 생태기행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올바른 생태기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서 철새와 서식처로서의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내의 자연 습지와 철새를 보전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3. 사업 내용

일자	강좌명	강의주제	강사	강의장소
02.06.28 (금)	실내강좌1 (19:10 ~ 20:30)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강의교재: 첨부 1-1	한상훈 선생님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장)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실내강좌2 (20:40 ~ 22:00)	갯벌의 무척추동물과 그생태 강의교재: 첨부 1-2	손민호 박사님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연구원)	"
02.06.30 (일)	현장강좌 (10:00 ~ 17:00)	낙동강하구 전체 조망/ 갯벌의 무척추 동물과 그생태	박중록 선생님 손민호 박사님	아미산/ 진우도

일자	강좌명	강의주제	강사	강의장소
02.07.26 (금)	실내강좌1 (19:00 ~ 19:40)	새란?/왜 우리는 새를 만나러 가는가?/여름에 만나는 새 강의교재: 첨부 1-3 시험지: 첨부 2-1	박중록 선생님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실내강좌2 (19:50 ~ 21:20)	갯벌의 식물과 그생태 강의교재: 첨부 1-4	이운정 선생님 (부산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
02.07.28 (일)	현장강좌 (10:00 ~ 17:00)	갯벌의 식물과 그생태/ 낙동강하구의 여름새	이운정 선생님 박중록 선생님	진우도/ 염막
02.08.23 (금)	실내강좌1 (19:00 ~ 19:40)	탐조란?/탐조시 유의사항/탐조 장비 사용법/도요물떼새1 강의교재: 첨부 1-3 시험지: 첨부 2-2	박중록 선생님	부산대 보육센터 A203호
	실내강좌2 (19:50 ~ 21:20)	조류 생태계의 이해 ※ 슬라이드 강의	이기섭 박사님 (조류학박사, 메가람조류생태연구소 소장)	"
02.08.25 (일)	현장강좌 (08:00 ~ 14:00)	낙동강하구의 도요.물떼새1	이기섭 박사님 박중록 선생님	도요등/ 명금머리/ 명지갯벌
02.09.27 (금)	실내강좌1 (19:00 ~ 20:30)	우리 주위의 새/ 새들의 분류/ 도요물떼새2, 맹금류1 강의교재:첨부 1-5-1/2 시험지: 첨부 2-3	박중록 선생님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02.09.29 (일)	실내강좌2 (10:00 ~ 12:00)	갯벌 생태계의 이해 강의교재: 첨부 1-6	제종길 박사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자원공사 물홍보관 시청각실
	현장강좌 (13:00 ~ 18:00)	낙동강하구의 도요.물떼새2	김은정 선생님(부산녹색연합 환경부장) 박중록 선생님	도요등/ 명지갯벌
02.10.25 (금)	실내강좌1 (19:00 ~ 20:30)	새들의 이동/새들의 일년/새들의 수명/ 이달의 새: 겨울새1 강의교재: 첨부 1-7 시험지: 첨부 2-4	박중록 선생님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일자	강좌명	강의주제	강사(약력)	강의장소
02.10.27 (일)	실내강좌2 (10:00 ~ 12:00)	한국의 갯벌 강의교재: 첨부 1-8	백용해 선생님 (갯벌이야기 저자, 습지운동가)	사무실
	현장강좌 (13:00 ~ 18:00)	낙동강하구의 겨울새1/ 갯벌의 저서생물	박중록 선생님 백용해 선생님	명지갯벌/ 신호리갯벌
02.11.22 (금)	실내강좌1 (19:00 ~ 21:00)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실제 ※ 슬라이드 강의 녹취원고: 첨부 1-9 비디오CD: 첨부 5	류창희 선생님(자연생태연구소 "마당" 대표)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02.11.24 (일)	실내강좌2 (10:00 ~ 12:00)	새를 구별하는 법/ 겨울새2 강의교재: 첨부 1-10 시험지: 첨부 2-5	박중록 선생님	사무실
	현장강좌 (13:00 ~ 18:00)	낙동강하구의 겨울새2	박중록 선생님	명지갯벌/대마등 신호리
02.12.27 (금)	실내강좌1 (19:00 ~ 22:00)	생태기행의 지침들 강의교재: 첨부 1-11 겨울새 3-갈매기류 시험지: 첨부2-6	강연성 선생님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중등교사모임 회장) 박중록 선생님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02.12.29 (일)	실내강좌2 (10:00 ~ 12:00)	새들의 먹이 ※ 슬라이드 강의 녹취원고: 첨부 1-12 비디오CD: 첨부 5	이기섭 박사님	수자원공사 물홍보관 시청각실
	현장강좌 (13:00 ~ 18:00)	낙동강하구의 겨울새3	이기섭 박사님/ 박중록 선생님	아미산/명지갯벌 / 신호리/서낙동강
03.02.07 (금)	실내강좌1 (19:00 ~ 22:00)	겨울새 4-맹금류2 종합시험 시험지: 첨부 2-7 새와 친하는 놀이-새목걸이 만들기	박중록 선생님	부산대 보육센터 A301호
03.02.09 (일)	실내강좌2 (11:00 ~ 12:00)	한국의 습지와 습지보전운동	이인식 선생님 (습지와 새들의 친구 대표)	주남저수지 부근 식당
	현장강좌 (13:00 ~ 17:00)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의 겨울새	이인식 선생님/ 박중록 선생님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일자	강좌명	강의주제	강사(약력)	강의장소
03.02.15 (토)	교육실습 (14:00 ~ 18:00)	주말겨울철새학교 교육실습1		아미산/울속도남 단/ 염막지구
03.02.22 (토)	교육실습 (14:00 ~ 18:00)	주말겨울철새학교 교육실습2		아미산/울속도남 단/명지갯벌/ 염막지구
	수료식 (19:00 ~ 20:00)	수료증, 상장 수여		사무실

4. 자체 사업평가

가. 수료자 수업평가

○ 좋았던 점

- 자연학교를 통하여 인간 외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훌륭한 선생님들의 열강에 감화되었다.
- 새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을 친구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바라는 점

- 갯벌생물에 대한 강의와 현장실습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했으면 좋겠다.
- 새뿐만 아니라 습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곤충, 식물에 대한 강의를 늘렸으면 좋겠다.
- 낙동강하구뿐만 아니라 다른 습지나 갯벌에서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갯벌식물과 새들의 먹이에 시간을 좀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
- 현장실습을 할 때 물때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 수강생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주어지면 좋겠다.
- 사무실을 공부방으로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나. 종합 사업평가

○ 강의의 질

자연학교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들의 강의는 대체적으로 운영진의 기대수준에 부응했고, 수강생들도 만족하여 불만을 말하는 적은 없었다. 일부 강사 중에는 필드 경험이 부족하여 운영진을 만족시키지 못한 분이 있었고(물론 그 분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불만이 없었지만), 바쁜 일정에 쫓겨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강의주제에서 벗어나는 강의를 한 분도 있었다. 본 강좌를 연속하여 개최한다면 손민호, 백용해, 이기섭, 류창희 선생님은 꼭 다시 모실 계획이다.

○ 강의 진행

원래 2002년 5월부터 시작하려던 강좌가 준비 관계로 6월로 연기된 점, 2003년 1월 강좌가 단체의 행사관계로 2월로 연기된 점, 일부 초빙강사의 사정으로 강의 순서가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강좌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수강생의 수강 태도

수강생들은 다들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고, 강의에 만족하고 즐거워하였다. 다만 사회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명강의를 놓치는 것이 아쉬운 점이였다.

○ 성과

수강생들이 수료 후 생태기행을 안내하는 환경지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습지와 새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연의 동식물을 친구로 생각하는 생태적 마인드이다. 본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이러한 생태적 마인드를 우선 심어주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강좌도 이에 맞게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낙동강하구의 갯벌과 철새들을 보며 행복해 하였고, 강사들의 열정에 감화되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마지막 주남저수지에서의 현장실습에서는 수강생들이 새를 보는 눈이 확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좌는 “생태적 마인드와 전문지식을 아울러 갖춘 생태기행 안내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 개선점

① 출석률의 제고

현실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사정에서, 수강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이다 보니 결석이 좀 잦았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개인 사정보다도 이 강좌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강좌가 재미있어 도저히 빠지면 안된다고 마음먹게 하는 법, 둘째 수강생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를 보고 싶게 만드는 법, 셋째 반장 제도를 만들어 출석을 반장에게 책임지게 하는 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의 시간 배분

강의는 주로 생태교육 일반, 갯벌 일반, 갯벌동물, 갯벌식물, 새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본 단체가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자연히 이종에서 새에 비중을 높이 두게 되었고, 이 점을 수강생들도 소감문에서 지적하였다.

8개월간의 긴 과정이지만 사실 새에 대해 모든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란다. 물론 갯벌동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각 분야별 강의 목표를 정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균형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갯벌과 새를 나눠서 강좌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③ 필드 경험의 제고

각 실내강좌에 대한 현장실습을 매번 했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정기 현장강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필드에서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제대로 생태기행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강좌 시간을 늘리는 것도 운영상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필드 경험을 늘리게 하는 방법은 본 단체의 생태기행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수강생들 스스로 그룹 스터디 방식으로 필드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수료후 재교육

본 강좌의 수료생들은 부족하지만 필드에 나가서 생태기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료생들은 아직 필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료 후에도 계속 재교육을 원하였다.

수료생들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필요하므로 수료식 때 동기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동기회장으로 김성준 박사님을, 부회장으로 김명희씨를, 총무로 김홍이 선생님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동기회는 본 단체의 홈페이지에 개설될 동문회란을 통해 서로 의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갯벌탐사 혹은 탐조 모임을 갖기로 하고, 본 단체는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동기회 회원들은 본 단체의 기행활동에 도우미로 동참하여 경험을 쌓고, 본 단체는 향후 계속될 안내자 양성 과정에 수료자들에게 무료로 청강할 수 있는 특전을 주기로 하였다.

다.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본 강좌에서는 총 19명의 등록생 중에서 1명이 중도탈락하고, 18명이 수료하였다. 이 중에서 14명 정도가 향후 환경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환경련의 핵심회원인 김명희씨는 울산양정주민문화센터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매월 1회의 정기적인 생태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당분간은 본 단체가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곧 독자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김명희씨는 필드경험을 좀 더 쌓으면 조류전문가가 거의 없는 울산에서 정기적인 조류조사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부산초등교사모임 회원인 박동현, 주미란 선생님은 본 단체의 핵심회원으로서 앞으로 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밖에 초·중등학교 교사인 김양희, 김홍이, 박성현, 우진영, 안춘희, 정영희, 주정운, 안혜원 선생님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교육과

학교 자체의 생태기행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강사인 남춘희 선생님은 식물학 전공자로서 생태기행 중에서 갯벌식물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으며, 부산 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준 박사님은 동문회장으로서 동기생들을 이끌며 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부전시장에서 쌀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구병찬씨는 업무상 생태기행 안내자로 나서기는 당분간 힘들지만 동문회 활동에 동참하면서 역량을 키운 후 여건이 되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환경 지도자 양성교육



단체명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기간	2002. 5. ~ 2003. 2.		
담당자	신차선	E-mail	gongdong@kornet.net
전화	02-814-3606	팩스	02-815-795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 생태나들이 지도자 양성 교육

1. 사업목적

-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20세기에 확장된 산업문명의 논리가 21세기에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국민 대부분은 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해 하고 있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교육을 준비하는가는 바로 21세기의 주역인 현재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지 안내하고 지원하며 교사 또한 보다 깊고, 바른 환경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의 시작은 바로 생활 속의 자연 나들이 활동이다.
환경교육은 마치 초·중등 학생만 받는 지식중심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가족들이 집 근처의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오감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이 바로 자신의 감수성회복을 지향하는 생활 속의 가족 나들이중심의 환경교육이다
- 아이들의 참여는 바로 시민(아빠·엄마)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환경교육은 주로 지식 및 event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주변의 작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 연구수행조사-산림청)와 옥구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바로 생활 속의 인근 자연환경에서 옥구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네의 뒷산과 공원의 나무와 숲의 벌레·곤충·꽃 등등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 21세기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을 연결 시켜주는 보육교사를 환경전문가로 육성시킨다.
초등학생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놀며 학습하고 쉬는 곳이 가정과 어린이집(방과후-학교포함)이다. 이에 전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학교 보육교사들 중 환경지도자 교육의 강한 의지(동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이론적, 실천적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생활주변에의 친숙한 자연환경전문가로 성장하여 어린이집(방과후)의 아이들과 부모(시민)들의 친근한 환경지도자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 만남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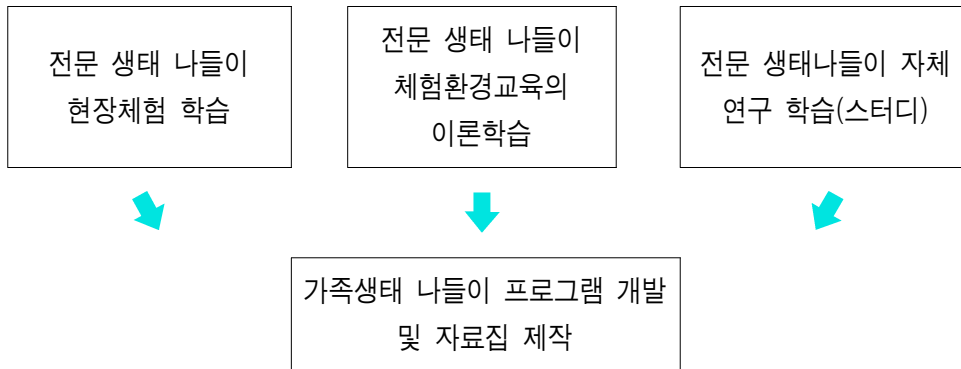
2. 사업의의

- 생태 답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충분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생태에 대한 생동감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한 해의 흐름을 생태의 변화를 통

해 체득 느낄 수 있었다.

○ 어린이집의 한 흐름을 생태적 교육철학으로 잡는데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었다.

3. 사업 개요



4. 사업내용

▷ 사업1. 전문 생태 나들이 현장체험 학습 활동 -전문강사준비교육-

- 사업기간 : 2002. 5. ~ 2003. 2
- 참석대상 : 공동육아협동 조합 어린이집 교사
- 장 소 : 전국에 있는 산, 숲, 갯벌등등
- 강사진 :
 - 류창희 (서울시립대 석사, 박사과정수료, 마당자연생태연구소 소장)
 - 채승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열린교육 배움터 “누림” 책임 연구위원)
 - 유성주 (어린이 생태 전문가 - 개구쟁이 대표)

기 간	현장체험 장소	활동 내용	준비물	강사
5.08(수)	의왕시 청계산	개구리와 도롱뇽 관찰 및 자연물 만들기	식물도감, 필기도구, 간식, 사진기, 돋보기, 손전등	류창희
6.05(수)	북한산	나무와 들꽃 및 자연물 만들기	식물도감, 필기도구, 간식, 사진기, 돋보기, 확대경	류창희
7.10(수)	양평 소입천	물고기 관찰 및 자연물 만들기	조류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장화, 물안경	류창희

기 간	현장체험 장소	활동 내용	준비물	강사
8.26(월)	대부도 남사리	갯벌 체험학습 및 자연물 만들기	신발, 갯벌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반바지	류창희
9.18(수)	충북 영동	가을 들꽃 및 자연물 만들기	들꽃 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돋보기, 청진 기	채승우
10.09(수)	인천 남동고 해양 생태공원	가을 열매 관찰 및 자연물 만들기	들꽃 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돋보기, 청진 기	채승우
9.18(수)	충북 영동	가을 들꽃 및 자연물 만들기	들꽃 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돋보기, 청진 기	채승우
10.09(수)	인천 남동고 해양 생태공원	가을 열매 관찰 및 자연물 만들기	들꽃 도감, 필기도구, 간식, 차비, 사진기, 돋보기, 청진 기	채승우
10.20(일)	종묘, 창경궁	고궁의 나무	나무 도감, 청진기, 돋보기, 사진기, 필기도구	유성주
10.27(일)	여의도 공원	공원의 나무	나무 도감, 청진기, 돋보기, 사진기, 필기도구	유성주
11.06(수)	경안습지와 팔당댐	겨울 철새 관찰 및 자연물 만들기	장갑, 겨울철새도감, 쌍원경, 망원경, 사진기	류창희
12.11(수)	양평 강하면	겨울 흙으로 자연물 만들기	필기도구, 사진기	류창희
1.15일(수)	북한산	겨울산의 숲 이해하기	사진기, 필기도구, 사진기	유성주

▶ 실제 답사를 통해 교사들이 충분한 체험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그 경험들을 전 수 해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으로 진행하였다.

▷ 사업2. 전문 생태 나들이 체험환경교육의 이론학습 활동

- 사업기간 : 2002. 5. ~ 2003. 1
- 참석대상 : 공동육아협동 조합 어린이집 교사
- 장 소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회의실
- 강사진 :
 -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채승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열린교육 배움터 “누림” 책임 연구위원)
 - 심상옥 (생태 교육 전문가)
 - 유성주 (어린이 생태 전문가 - 개구쟁이 대표)
- 교육목적 : 어린이집(방과후)에서의 생태나들이 체험환경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인식하고 통찰하여 지역에 맞는 가족 생태나들이 프로그램개발과 평가활동으로 생태나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기 간	이론학습 장소	학습 내용	참고 도서	강사
5.10(금)	공동육아연구원 회의실	체험환경교육의 이론적 기초 및 개구리 생태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채승우
6.07(금)	"	왜! 생태교육인가?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오래된 미래	박석동
7.05(금)	"	체험 환경교육의 실제와 적용 1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 산림청	채승우
8.02(금)	"	갯벌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학습	갯벌교육자 워크샵 자료집 - 갯벌사랑동우회	심상옥
9.06(금)	"	꽃과 들풀의 속삭임	산림환경교육 - 산림휴양학회	심상옥
10.04(금)	"	민물고기와 계곡	원색한국조류도감- 아카데미서적	심상옥
11.01(금)	"	공원 및 고궁의 나무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 전원문화사	유성주
12.06(금)	"	체험 환경교육의 실제와 적용 2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 산림청	채승우
1.10(금)	"	생태적 감수성이란?	공동체를 찾아서, 무탄트	박석동

▷ 사업3. 전문 생태 나들이 체험환경교육의 자체 학습 활동 및 활동집제작

- 사업기간 : 2002. 5. ~ 2003. 1
- 참석대상 : 공동육아협동 조합 어린이집 교사
- 장 소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회의실
- 강사진 : 자체 세미나
- 교육목적
 - 각 지역의 생태나들이 활동 사례를 나누며 전문가들의 전문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엄마, 아빠(시민)와 아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나들이 프로그램개발과 자료집을 발간한다.

기 간	이론 학습 장소	학습 내용	참고 도서
5.17(금)	(사)공동육아연구원 회의실	현장에서의 체험환경교육1 - 과정 및 현황파악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6.21(금)	"	현장에서의 체험환경교육2 - 체험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평가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5.17(금)	(사)공동육아연구원 회의실	현장에서의 체험환경교육1 - 과정 및 현황파악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6.21(금)	"	현장에서의 체험환경교육2 - 체험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평가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7.19(금)	"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환경교육 사례발표 및 연구회 1 - 부천지역, 광진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기행 - (사)한국도시연구소
8.16(금)	"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환경교육 사례발표 및 연구회 2 - 신촌지역, 강동구 지역	환경교육에서 현장체험학습 - 환경부
9.18(수)	양재역 근처 카페	답사 나눔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10.9(수)	"	답사 나눔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무와 숲에 관한 자기학습식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기 간	이론 학습 장소	학습 내용	참고 도서
11.06(수)	"	답사 나눔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혁신방향연구 -환경교육학회
12.11(수)	"	답사 나눔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숲 체험 프로그램 - 전영우 수문출판사
1.15(금)	"	답사 나눔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 환경교육학회
2.15(토)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	생태 나들이 체험환경교육활동 발표회	생태나들이 체험환경교육자료집

5. 자체 종합평가

- 월 1회 생태전문가에게 현장전문교육을 바탕으로 어린이집(방과후)아이들이 다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생태나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집(방과후)교사들이 공동육아 교사 교육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태나들이 교육을 안내하는 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과를 남기고 있다.
- 월1회 현장답사, 외부강사강의, 내부세미나로 강행군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간을 장시간 내야하는 부담으로 누적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번 아웃(소진)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치지 않는 세심한 진행이 부족했으며 좀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의 과제가 남는다.

6. 향후 진행 방향

공동육아의 교육철학 중 “생태나들이”로 교육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좀더 전문적이면서 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해나가고, 이를 구조화하여 공동육아 외 다른 보육환경에 있는 단체에 교육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자료화 및 교육워크샷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부모교육을 기획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공동육아 홈페이지(www.gongdong.or.kr) 및 격월간 <공동육아>를 통해 ‘전문환경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와 교육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태나들이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



단체명	환경정의시민연대(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사업기간	2002. 4. ~ 2003. 3.		
담당자	신권화정	E-mail	b612@eco.or.kr
전화	02-743-4747	팩스	02-743-4748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

1. 사업개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부모들이 쏟아 붓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돈은 엄청나다. 그러나 육아나 교육에 쏟아 붓는 지금의 노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더욱더 조기 교육과 영재 교육에 매달리지만,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기는커녕 점점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인간형으로 자라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내 교육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소속 회원들과 가져온 1년간의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살아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배우고 자라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되었고, 지금 현재의 육아 현실이 어두운 것은 교육의 방향을 잡지 못해 불안정한 엄마, 아빠와 기계화되고 파편화된 이 사회에 아이들이 내몰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나마 희망스러운 점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한 주부들이 각 마을 단위로 품앗이 육아를 진행하면서 직접 육아의 주체로 나서, 경쟁적인 육아를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람과 자연 속에서 키워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 좋은 의지가 각종 난관에 부딪쳐 더 큰 상처만을 안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교육분과에서는 자연과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학교를 통해 이들이 각 지역에서 품앗이 육아를 직접 구성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방 등에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목적 및 의의

가.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생태체험 교육 목적

책에서만 배운 지식이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듯 환경에 대한 교육은 직접 체험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감각을 통하여 세계를 체험하고, 체험을 통하여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오감을 통한 체험이 되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과 염색,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닌 자연과 함께 사는 인간과 자연의 상생 관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별히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을 자주 찾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커가도록 하는

데, 본 교육의 목적이 있다.

나. 생태체험 주부지도자 양성 학교 목적

육아가 여성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억압이 되지 않고 여럿이 힘을 합해 즐겁게 참여하는 일이 되며, 아이들이 관에 찍혀 나온 복제물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라나며,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부 지도자를 양성한다.

3. 사업내용

1). 주부 생태지도자 교육

- 기 간 : 6월 ~ 10월
- 대 상
 -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교육분과원
 - 각 지역 품앗이 공동육아 참여자
 - 환경단체 추천 활동회원
 - 환경관련단체 실무자
- 강의내용

일시	강의내용	장소	강사	참석인원
6.12	오리엔테이션-생태적 감수성과 육아	환경정의시민연대 강당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16명
6.19	교육분과 스터디 - 『함께 크는 우리아이』 독서토론 -	”	-	19명
6.26	아토피를 잡아라	”	김순영 (『아토피를 잡아라』 저자)	14명
7.2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실습 - 우리콩을 이용한 두유와 콩비지전 -	”	강진영 (친환경요리 전문가)	14명
7.3	하천주변의 식물 생태	”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	16명
7.10	자연과 삶, 우리의 아이들	”	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전임연구원)	17명

일시	강의내용	장소	강사	참석인원
7.16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소품 만들기 - 종이끈을 이용한 바구니 만들기 -	환경정의시 민연대 강당	김미애 (공동육아 '열리는 어린이집' 원장)	14명
7.20	물속 생물 관찰(수락산)	"	자체 진행	12명
8.21	실내환경교육 - 나무 이름표 만들기, 슬라이드 만들기, 치자 염색 -	환경 운동연합	임양혁(환경운동연합 교육간사)	14명
8.31	수서 곤충관찰	서울여대	함순아 (서울여대 자연생태학교 교사)	8명
9.4	새롭게 바라보는 아동발달과 교육	환경정의시 민연대 강당	이부미(공동육아공동체 교육 책임연구원)	14명
9.11	세시풍속이란 무엇인가?	"	박현숙(평택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	12명
9.25	전통놀이 방법	"	"	9명
10.2	사계절과 식생 - 숲체험	북한산	유창희(생태보전시민의 모임)	9명
10.8	산양유 목장 방문 - 농장 견학 -	충북 영동	-	17명
10.19	길동생태공원 현장답사	길동 생태공원	김창환(길동생태공원 자원봉사자)	7명
10.30	곤충관찰	환경정의시 민연대 강당	박혜철(잠사곤충연구원)	11명
11.2~3	강사훈련워크샵 - 주부아동 대상 환경교육법 -	용인 피정의 집	고상준(아데나워재단)	9명
11.6	자연모니터링 방법	환경정의시 민연대 강당	민성환(생태보전시민의 모임)	14명
11.13	수료식	"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11명

2) 시루떡학교

가. 시루떡 학교 (여름)

- 기 간 : 2002년 8월 14일 ~ 16일(2박3일간)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대 상 :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 참가인원 : 학생 37명(남 14명/여 23명) 교사 및 스태프 12명

○ 프로그램

날 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8/14(수)	오전 9:50	양재시민회관집결/확인	
	10:00	실상사로 출발	
	11:00	차안프로그램	자기소개
	12:00	점심도시락 먹기	
	오후 1:00	차안프로그램	노래배우기
	3:00	실상사 도착	
	3:00-4:00	도법스님 말씀 및 실상사 둘러보기	
	4:00-5:00	나무야 나무야 나랑 놀자!	숲체험
	5:00-6:30	친구야! 하늘과 맞닿아 놀아보자.	모듬별 이름짓기 및 장기자랑
	6:30-7:20	저녁먹기	
	7:30-9:00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	음식의 허와실
	9:00-10:00	엄마의 편지 / 일기쓰기	
	10:00	잠자기	
8/15(목)	오전 6:00	일어나기	체조
	6:30-7:00	아침먹기	
	7:00-8:30	숲속에 온갖 생명이 살고 있어요!	곤충관찰
	9:00-11:00	나도 오리농군(농사체험)	노작 및 새참
	11:00-12:00	내가 만드는 먹을거리 - 요리 콘테스트	
	12:00-1:00	점심먹기	
	1:00-3:00	황토속에 빠진 내웃(황토염색)	
	3:00-5:30	첨벙첨벙 물놀이	
	5:30-6:20	정리	
	6:30-7:20	저녁먹기(천천히 먹기)	
	7:30-9:00	먹을까말까 천사와 악마놀이	역할극
	9:00-10:00	모듬별 모임 - 공방, 이야기방, 마실가기	
	10:00-10:30	일기쓰기	별자리보기
10:30	잠자기		
8/16(금)	오전 6:00	일어나기	체조
	6:30-7:00	아침먹기	
	7:00-8:00	뒷동산에 올라봐요~~~~	
	8:00-10:00	모듬별 모임 (어른들 귀기울여 주세요) - 우리는 이런 먹을거리를 원해요~	우리가 정하는 실천강령 - 식품회사, 식약청 등

날 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8/16(금)	10:00-11:00	전체모임	의지 밝히기
	11:00-12:00	떡메야 ! 시소타자 - 인절미 만들기	인절미
	12:00-1:00	점심 먹기	
	1:00-2:00	친구와 이별하기	내가 쓰던 방 청소
	오후 2:00 ~	서울로 출발	
	7:00	양재시민회관 도착	

나. 시루떡학교 (먹을거리 교정 캠프)

- 기 간 : 2003년 1월 16일 ~ 18일(2박3일간)
- 장 소 : 홍성친환경농업교육관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5학년
- 참가인원 : 학생 28명(남 16명/여 12명) 교사 및 스태프 11명
- 프로그램

날 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16(목)	오전 9:50	양재역 서초구민회관집결/확인	
	10:00	홍성으로 출발	
	오후 1:00	도착	
	1:00-2:00	점심먹기	
	2:00-3:00	자기 소개 및 시루떡학교 프로그램 안내	모둠별 활동
	3:00-5:30	썰매 타기(모둠별 썰매 릴레이)	고구마,감자 구워먹기
	5:30-6:00	정리	
	6:00-7:00	천천히 저녁먹기	
	7:00-8:30	내가 좋아하는 음식지도 만들기.	모둠별 활동
	8:30-9:00	김치 만들기 1단계 (절이기)	모둠별 활동
	9:00-10:00	정리 및 편지 읽기	
	10:00	잠자기	
	1/17(금)	오전 7:00	일어나기
7:00-7:30		씻기 및 체조	
7:30-8:00		김치 담그기 2단계(배추 씻기)	
8:00-9:00		천천히 아침먹기	
9:00-11:30		김치 담그기 3단계(배추속 만들고 양념하기)	전체 활동
11:00-12:00		짚공 만들기	
12:00-1:00		천천히 점심먹기	

날 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17(금)	1:00-2:30	야외놀이	
	2:30-4:00	그것이 알고싶다 - 김치	모듬별 활동
	4:00-5:30	김치 홍보자료 만들기	모듬별 대항
	5:30-6:00	발표	전체
	6:00-7:00	천천히 저녁먹기	
	7:00-8:30	쥐불놀이	야외활동
	8:30-9:30	퀴즈방	모듬별 대항
	9:30-10:00	정리	
	10:00	잠자기	
1/18(토)	오전 7:00	일어나기	
	7:00-8:00	씻기 및 체조	
	8:00-9:00	천천히 아침먹기	
	9:00-10:30	그것이 알고 싶다 - 유해물질	모듬별 활동
	10:30-12:00	김치로 만든 요리	시상
	12:00-1:00	천천히 점심먹기	
	1:00-2:00	친구와 이별하기	내가 쓰던 방 청소
	오후 2:00~	서울로 출발	
	6:00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도착	

4. 자체 종합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육아, 교육의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 강사로 양성됨으로써 다지사의 특성에 맞는 생태프로그램 운영의 단초 마련
 - 시루떡학교를 통해 생태지도자로서의 현장감을 익힘
 - 시루떡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음
- ※ 중앙일보(02.08.12), 조선일보(03.1.7), KBS1 TV일요스페셜(02.10.20), KBS라디오, PSB라디오, 불교방송 등 다수
- 사업 추진상 부진한 점
 - 수강생들의 지속적 참여 부족
 - 실내강의가 많아 실습 위주의 훈련과정 필요
 - 지역 내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거점 모니터링 필요

5. 추후 활동계획

- 성북구 내 북한산 국립공원 거점 마련
- 매월 1회 현장답사 모니터링
- 실습 위주의 훈련과정(공동육아 어린이집 보조강사활동)
- 각자 관심분야를 정해 정보 축적
- 성북구청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또는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숲 생태 지도자 양성과정



단체명	숲 연구소		
사업기간	2002. 6. ~ 2002. 11.		
담당자	남효창	E-mail	wald@ecoedu.net
전화	02-754-4526	팩스	02-765-4373

숲 생태 지도자 양성과정

1. 취지 및 필요성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인류는 숲을 이해하고 생활속에 접목시켜왔다. 숲은 인간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숲이, 때로는 포근한 은식처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숲, 때로는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한약고로서의 병원역할을 하는 숲, 동시에 많은 학자나 문학자 또는 예술가들의 숲을 사색하면서 생각을 정립했던 예술적 창조와 철학적 사색의 공간으로서의 숲이기도 하다.

그러나 숲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로서 보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생각으로의 전환은 최근에야 일어났다.

터전이 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근심으로 다가오는 환경 문제는 숲의 변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때문에 숲을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보는 것은 또한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인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하는 일은 숲과 그 밖의 자연에서 체험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 현실은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닌 오로지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교육으로 내몰려왔으며, 체험현장인 숲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교육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01년 제7차 교과과정을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 가는 교육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즉 머리, 가슴, 손으로 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이제는 제도권교육에서 이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장 체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지닌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숲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 양성이 시급한 일이라 판단된다. 숲의 현장에서 숲에 관한 교육을 바람직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숲생태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수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숲생태지도자 양성과정' 개설을 하고자 한다.

2. 기대효과

- 제도권교육이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공교육이 추구하는 현장체험교육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우리 사회의 많은 고급인력 중 숲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숲생태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숲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재와 교구개발은 모든 현장교육에서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숲과 그 밖의 자연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게 활용될 것이다.
- 숲이란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숲과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삶과 건강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보전해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사업내용(1차/2차 생태지도자 양성교육)

- 강사 : 남효창, 조홍범, 박정호, 백원기, 최병진
- 현장교육 강사 : 양경모, 박동산
- 강의시간 및 성격
 - 매주 수요일 : 이론교육/오후 6시 - 8시
 - 매주 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2시

회수	단원	강좌	방법	장소
1	I. 숲생태의 이해	·강좌소개 및 숲이란 무엇인가?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2		·숲과 인간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3		·숲과 인간 - 숲의 가치	현장	홍릉수목원
4		·숲동물생태의 이해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5		·계곡생태의 이해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6		·숲토양 생태계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회수	단원	강좌	방법	장소
7	II. 숲생물의 이해	·식물 현장실습	현장	홍릉수목원
8		·식물의 이해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9		·숲동물생태 실습	현장	들꽃수목원, 양평
10		·계곡생태 실습	현장	정릉 청수장계곡
11	III. 숲생태교육의 기법과 방법 및 시연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론	한겨레 문화센터
12-13		·이론과 실제 - 숲체험교육의 이론과 실제	합숙	백둔리 자연학교
14		·평가 및 수료식	실내	한겨레 문화센터

4. 자체 종합평가

○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교육생들을 통해 본 강좌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공개적인 방법과 비공개적인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많은 교육생들의 의견종합해 보면,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서 자연이란 숲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좋은 자극제 역할이 되었다. 강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현장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강생들의 지식 편차가 크므로 해서 강의 수준과 내용을 조절해가기가 어려웠다. 즉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다양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의가 저녁시간에 진행됨으로 해서 수강생들의 불편이 있었으며, 강의 내용이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숲을 전달하게 될 '전달자'로서 알아야 할 평이한 내용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는 충분히 느꼈지만 이론 강의에서는 불충분했다.

○ 실내 이론 강의에 대한 평가

◆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만큼 깊이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 숲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역사속의 숲, 어떤 자세로 숲과 살아야하는가 등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식물학 등이 아닌, 정신적인 내용(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 강사마다 강의의 방향이 달라 어떤 것을 취해야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 학문적 접근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숲생태를 봐야하는지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워주는 부분이 부족했다.

◆ 강의 진행방법에 대한 평가

-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수강생들로 그룹을 만들어 진행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이야기 될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그룹별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 다소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다.
- 숙제나 과제가 필요하다-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을 소개하고 함께 읽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일방적으로 듣는 공부였다. 조별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 수강생끼리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강사, 수강생들이 자신의 좋은 경험이나 좋은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다.

◆ 교재(복사물, 원고)에 대한 평가

- 교재의 내용이 다수에게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었다.
- 자료집 뒤에 참고문헌 소개가 없었다.

○ 현장 강의에 대한 평가

- 현장강의 시간이 더 길면 좋을 것이다.
- 현장강의의 횟수가 더 많으면 좋을 것이다.
- 날짜나 시간 등 일정의 변화가 없다면 참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 현장에 많이 나가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 있을 것이다.
- 참가자들 모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예) 식사할 것을 각자 가져와 함께 먹는 등



민관기업 환경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단체명	푸른약속전북21 추진협의회		
사업기간	2002. 7. ~ 2002. 10.		
담당자	박 훈	E-mail	ja3543@hanmail.net
전 화	063-280-3543	팩 스	063-288-3543

민·관·기업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학교

1. 사업목적

- 생태해설 및 현장활동 위주의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생활 속 실천과 환경정책 및 친환경적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기업 차원의 지도자를 동시 양성하여 광범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개요

- 진행기간 : 2002년 7월 5일 - 2002년 10월 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단, 생활분야 3회, 행정분야 1회, 기업분야 1회의 현장 모니터링은 오전 11시 - 오후 4시)
- 교육분야 : 생활환경교육 지도자 양성학교
 기업환경교육 지도자 양성학교
 행정환경교육 지도자 양성학교
- 프로그램 진행장소 : 현대문화센터 (현대투자신탁 전주지점 4층)
- 교육이수자 정원 : 생활부분 20명 (일반 시민)
 기업부분 10명 (기업 근로자 중 환경 담당)
 행정부분 10명 (행정 공무원 중 환경 담당)

3. 취지

각 분야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를 양성하여,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과 친환경적 생활 태도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내용(교육일정)

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사	대상	장소
7.5	·입학식 ·공통강의1 - 환경철학과 환경운동	문규현 신부	전체	현대문화센터
7.12	·공통강의2 - 생명공동체	최형재(전주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전체	"
7.19	·공통강의3 - 민관기업 파트너쉽 환경운동	김택천(푸른약속전북21사무처장)	전체	"

교육 일정	교육내용	강사	대상	장소
8.2	·가정 내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중심) 모니터링방법	김보금(소비자고발센터 전북지부사무처장)	시민	현대문화센터
8.9	·폐기물 현장 모니터링 - 전주광역매립장, 팔복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	최두현(전주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시민	현대문화센터
8.16	·재활용과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	최형재(전주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시민	현대문화센터
8.23	·생태와 순환으로서의 귀농적 삶	전희식(생명농업학교)	시민	현대문화센터
8.30	·에너지 절약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김진태(전주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시민	전라북도2청사 사무실
9. 6	·에너지 절약부 만들기 및 활용법	김재병(전주시의제21사무처장)	시민	전라북도2청사 사무실
9.13	·생태탐사를 위한 이론 교육 - 전주천의 생물과 완산칠봉의 나무	신진철(시민행동21환경팀장)	시민	전라북도2청사 사무실
9.27	·생태탐사 1차 - 전주시민의 친구 전주천 하천 탐사의 준비와 과정	신진철(시민행동21환경팀장)	시민	전주천
9.28	·생태탐사 2차 - 완산칠봉 나무와 들꽃 배우기의 준비와 과정	김양용(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시민	완산칠봉
8.8	·지역의 친환경 환경정책 모범사례 강연 - 전주천 생태하천가꾸기사업의 진행과 성과	김택천(푸른약속전북21사무처장)	행정	도2청사 회의실
10.5	·친환경 환경정책 모범사례 현장답사 및 모니터링 -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진행부분 답사	최형근(만경강 민관학협의회 운영위원)	행정	
8.10	·친환경 기업운영 모범사례 현장 모니터- 전라북도환경기술지원단	한웅재(전라북도환경정책과지도계장)	기업	현장모니터
10.4	·중소기업의 친환경적 경영을 위한 지원과 대책	김정열(전라북도환경기업인협의회)	기업	
10.8	·수료식			

5. 자체 종합평가

전라북도의 환경지도자 양성은 크게 그 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환경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권 내 교육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모임과 클럽 등이 주도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비제도권의 환경교육이다. 제도권 내의 환경교육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형식적이고, 그 내용도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비제도권의 교육은 그 내용이 너무 현상적인 내용과 생태적인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다. 제도권, 비제도권을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경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적고, 양성된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아직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환경지도자 양성학교에서는 위 기술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산재해있는 것도 사실이며, 3개월간의 프로그램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겠다.

가. 진행과정에서의 성과

1) 다양한 계층의 참여

대부분의 환경지도자 프로그램들의 한 개의 표본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학교 선생님, 행정 담당자 또는 학생이거나 환경단체 실무자 등 주로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생, 주부, 유치원장, 환경단체 실무자와 행정 담당자, 기업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서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과 시각을 서로 교환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결론적인 사실들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 다양한 주제의 교육 시도

교육 내용의 질적 문제는 차후 기술하더라도,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히 환경철학에 관련된 3번의 강의와 각종 환경문제의 현상적인 문제, 생태교육 속에서 환경문제와의 연계 등을 시도해 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환경철학과 관련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관성을 교육하고자 하였고, 이런 유기적 연관성들을 깨뜨리는 현상적 문제들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은 피교육자들로 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3) 1차적 환경교육 효과

생활부분은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과 기업 부분은 현직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강의 주제를 각 분야에 보다 근접한 내용으로 잡아 이해를 쉽게 했으며 이로써 기본적인 1차적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4) 생활 속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 환경상식 교육 효과

현재까지 대부분의 환경교육이 일반 대중,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교육의 장르 역시 생태 기행과 유명인사 초청강연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프로그램은 친환경적 마인드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공통강의 3강좌와 에너지, 쓰레기, 재활용, 도시 내 하천과 인근 산의 생태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교육생 자체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교육시켜 우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수료생들이 이후 아파트 부녀회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민 소모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 보다 친근하고 실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선되어야할 문제점

1) 일부 참가자들의 출석 부족

교육의 또 한가지 중요한 의미가 자신을 돌아보는 길이라는 교장선생님의 입학식 훈화가 조금은 무색하게, 일부 참가자들(행정담당자, 기업중심)의 출석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무성의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과 강의 내용에서 여러 번 거론되는 행정과 기업의 환경 마인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부담감도 일면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2) 일부 강사들의 전문성 부족

강의를 맡은 강사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일부 강사들의 경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시행했던 원고를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강의의 핵심을 피교육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면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3) 연속되는 12개 강의 참여에 따른 문제

교육 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로 여름철을 지나고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강의 일정이 여유없이 진행되어 활동이 자유로운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100%의 참석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강의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다. 개선방향

- 1) 일부 강의의 시간대 조정 -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기업이나 행정담당자의 참여를 대폭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2) 지역의 강사 위주 구성을 탈피하고 전라북도 외 지역의 강사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강의의 전문성과 질 향상.

- 3) 푸른 약속전북21 추진협의회내 부속기구로 환경지도자모임을 설립하여 우리 협의회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이번 수료자들을 보충교육 또는 직접 투입할 것을 우리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 4) 시범수업, 직접 실기수업 등을 삽입하여, 실제 피교육자들의 교육적 자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특화 교육 실시.

6. 향후계획

○ 환경강사 특화 육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로 생활환경분야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민 소모임 대상, 하천탐사 대상, 인근 공원과 산의 생태탐사 대상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충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 도내 환경강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교육홍보분과위원회의 환경강사로 위촉하였으며 2003년 사업계획에 특화교육을 반영하였고 2003년 상반기에 심화교육을 이수한 후 하반기부터 실질적 환경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단체명	여성환경연대		
사업기간	2002. 5. ~ 2002. 11.		
담당자	이정수	E-mail	kwen21@chollian.net
전화	02-722-7944	팩스	02-723-9359

여성환경지도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1. 사업목적

- ‘여성환경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축하여 ‘여성환경세력화’에 기여한다.
- 환경분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지역별로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 관점을 통합하는 의제를 개발한다.
- 성(Gender)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볼 수 있는 여성지도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평등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
- 풀뿌리 여성환경활동가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한다.
- 지역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과제와 전망을 도출한다.

2. 사업의의

1) 지역별 네트워크의 확대

- 대구지역에서 대구여성환경포럼 조직되어 ‘모유수유’등과 같은 여성환경인의 공통의 이슈로 연대하는 계기가 됨.
- 경기남서부 지역은 여성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 연대를 모색하며 정기적인 워킹숍을 통해 정보와 인적교류, 공동의 사안에 대처하기로 함.
- 대전환경포럼은 활동내용과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됨.

2) 전국적인 풀뿌리 여성환경활동가의 발굴과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의 새로운 풀뿌리 여성환경활동가의 발굴하여 결합함.
- 지역 풀뿌리 활동가들이 모여 ‘녹색자치’의 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풀뿌리 여성환경운동의 과제를 점검함.
- 풀뿌리 여성환경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함.
- 풀뿌리 여성활동가의 여성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환경지도력을 강화함.

3) 여성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여성환경운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

3. 사업개요

○ 교육조직위원회 조직	- 지역별 인적 자원 파악 - 설문조사 실시
↓	
○ 사업단위 구성	- 대구, 대전, 경기남서지역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	
○ 교육조직위원회 조직 및 회의	- 일시: 5. 10(두산연수원) - 내용: 주요사업 및 중점지역 선정, 지역준비팀 구성
↓	
○ 경기남서부 여성환경활동가 워크샵 준비 및 진행	- 워크샵 준비 회의 5회 - 워크샵 실시: 2002. 10. 25 - 장소: 롯데연수원 - 참가자 : 경기남서부지역 여성활동가 32명 (수원ywca, 안산ywca, 과천녹색가게 등)
↓	
○ 대구 여성환경포럼 워크샵 준비 및 진행	- 워크샵 준비 회의 3회 - 워크샵 실시: 2002. 11. 16 - 17 - 장소 : 대구 비슬문화촌 - 참가자 : 19명
↓	
○ 대전 여성환경포럼 워크샵 준비 및 진행	- 워크샵 준비 회의 3회 - 워크샵 실시 : 2002. 12. 4 - 5 - 장소 : 대전여성환경포럼 - 인원 : 21명
↓	
○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 준비 및 진행	- 전국연수 준비 회의 5회 - 전국연수 실시 : 2002. 11. 8-11 - 장소 : 제주 원불교 국제 훈련원 - 인원 : 41명
↓	
○ 사업 평가 및 후속작업	- 평가 회의 2회

4. 사업내용

1) 경기남서부 여성환경활동가 워크샵

- 일시: 2002. 10. 25
- 장소: 롯데연수원
- 참가자 : 경기남서부지역 여성활동가 32명
- 프로그램

내용		강사
주제강연	·여성·환경·마음(영성)	김정희 /이대 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경험나누기	·살림의 정치, 녹색의 정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 ·지역 여성조직 변화시키기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우세옥 /안산의료생협 실장 조금숙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
나와 우리 조직의 전망 만들기		
마무리 의식		

2) 대구지역 워크샵 준비 및 진행

- 일시 : 2002. 11. 16 - 17
- 장소 : 대구 비슬문화촌
- 참가자 : 19명
- 프로그램

내용		강사
주제강연	·여성·생명·평화	정성은/생기마을 촌장
함께 나누는 이야기 마당	·여성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지역여성운동 ·대구지역 여성환경운동의 제안 ·대구 여성환경운동의 꿈틀거림 ·문화이벤트 : 춤 세라피	이미영/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유미화/안산YWCA 총무 (영상보고)

3) 대전지역 워크샵 준비 및 진행

- 일시 : 2002. 12. 4
- 장소 : 대전여성환경포럼
- 참가자 : 17명
- 프로그램

내용		강사
주제강연	·자치와 여성	황주석/한국YMCA 전국연맹
주제토론	·대전지역 여성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	
문화워크샵 : 여성과 몸, 환경		

4)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 준비 및 진행

- 워크샵 실시 : 11. 8 - 11
- 장소 : 제주도 원불교 국제훈련원
- 참가자 : 전국 풀뿌리 여성환경 활동가 41명
- 프로그램

일시	진행내용	비고
첫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연 1 : 여성·살림·자치(윤형근/ '모심과 살림 연구소' 사무국장) - 제주도 전래놀이와 민요 배우기(진행 : 제주도 소리패 소리왓) 	
둘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연2 : 여성운동가의 삶과 마음(영성)(김정희, 이대 여성연구원) - 워크샵 여성이 만드는 삶의 자치, 녹색자치 ◇패널토의 : 유문향(과천 녹색가게), 최순영(경기여성연대), 광금순(한살림 도봉지부), 임희자(마창환경연합) - 미술관 산책 - 소그룹 대화 - 미니 체육대회 - 문화 워크샵 : 여성·살림·힘(조혜영, 강북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팀장) 	

일시	진행내용	비고
셋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소그룹대화 발표 /전체토론 - 특별강연 : 제주 여성의 삶과 힘 (시인 김순이) - Leadership Training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 Festival (여신축제) 	
넷째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정리 - 생태·문화기행 (하순애/동의대 철학과 교수) 	

5. 자체 종합평가

가. 사업 평가

- (1) 지역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후 지속적인 지역사업의 기초 마련함.
- (2) 전국연수의 프로그램에 많은 수가 적극적인 평가와 참여를 나타내 지역의 핵심 활동가들의 참여와 전국적 여성네트워크를 형성함.
- (3)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녹색리더쉽에 기반한 여성리더쉽의 공유로 지역의 풀뿌리 여성환경지도자를 육성함.
- (4) 대구에서 대구여성환경포럼이 조직되고 경기남서부지역에 네트워크의 기본 인적구성 마련하는 등 여성환경운동의 과제를 공유함.
- (5) 지역익살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발굴된 여성활동가를 전국연수에 결합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일정의 변동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었음.
- (6) WSSD 등 여름에 큰 국제 행사에 지역 풀뿌리들과 환경활동가들의 대거 참여로 인한 변수를 예상치 못하였음.

나. 향후 과제

- (1) 지역별 네트워크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 (2) 여성환경주의에 기초한 대안 리더쉽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계획
- (3) 지속적인 여성환경운동의 담론 확립을 위한 월례여성환경포럼 기획
- (4)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및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프로그램 기획